

癸巳 南行錄이 갖는 退溪의 平生事的 意義**

權 五 鳳*

● 目 次 ●

- | | |
|---------------------|-------------------|
| I. 序 論 | 2. 南行錄 재편집 |
| II. 南行 前의 事錄과 藏身 | 3. 逸詩 목록에 보이는 南行詩 |
| III. 灌圃 魚得江과 退溪의 交遊 | V. 平生事的 의의 |
| IV. 南道 紀行과 南行錄 | VI. 結 論 |
| 1. 日程과 寄旅 | |

I. 序 論

퇴계의 연보 33세 기사(1533) 연조에는, 성균관에 유학하여 관생(館生)들로부터 敬服을 받았고, 가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冲齋 權穰과 함께 여주 이호촌에 들러서 파직되어 퇴거하고 있는 慕齋 金安國에게 正人君子論을 들었으며, 경상도 鄉試에 赴學하여서 제일위로 합격한 사실만이 修譜되어 있다.¹⁾

퇴계의 평생사 즉 생애사적 측면에서 기사년의 志行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매우 의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河西 金麟厚로부터 “夫子嶺之秀 李杜文章 王趙筆(선생은 嶺南에서 빼어난 분이외다. 문장은 李白과 杜甫 같으시고, 글씨는 王羲之와 趙孟頫

* 전 포항공대 교양학부 교수

**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퇴계학연구』 제5호, (1991) 게재논문

1) <年譜> 十二年 癸巳·先生 三十三歲條.

를 비기리라)”이라는 극진한 敬慕의 찬사를 받은 것을 필두로 하여²⁾ 대 시간을 지낸 노시인 곤양군수(현 사천군) 灌圃 魚得江의 초청을 받아³⁾ 봄에 남행하여 109수나 되는 기행시를 읊은 일⁴⁾, 친척과 선현유적⁵⁾ 및 명승을 탐방하고⁶⁾, 남도의 여러 搢紳 章甫들과 교류를 하였으며⁷⁾ 특히 현실에 참여해 일선 행정의 번잡한 공무중에서도 도원을 만들어 치교를 병행하고 있는 실존 인물을 만나고 나서는⁸⁾, 浮薄한 풍조를 개혁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을 얻은 일, 그래서 여름에 뜻을 품고 서행을 한 사실들을 들 수 있다.⁹⁾

그 때 世情은 바로 기묘사화를 겪은 다음이라서 선비들은 꺾여 있었고 도학은 입밖에도 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¹⁰⁾ 퇴계는 성균관에 들

-
- 2) <河西年譜>, 十二年 癸巳, 先生二十四歲, 時經己卯土禍 士氣沮喪 諱言道學 而先生一見退溪 深相契合 源源講劇 甚有麗澤之益 未幾退溪還鄉 先生以詩贈別有 夫子嶺之秀 李杜文章 王趙筆之句
- 3) <遺集> 卷三 外篇, 14~15葉<寄魚灌圃>. 億我去年冬 再拜得公書 開緘長跪讀 公書 招我遠遊勿懷居 新春作意向南行 千里宜春來駐驢…… 이 詩는 南行한 癸巳年 詩이고 詩의 “去年冬”은 退溪 32歲 때 壬辰年 겨울을 가리킨다. <東州道院次韻> 第14. 注. 去年冬公以書招況 勸遊雙溪寺云云
- 4) <遺集> 卷二 外篇, 21~22葉 <夢中得一聯覺而足之 並序>의 後叙. <右南行… 是歲癸巳春余南遊宜春 其夏西入洋宮 往返所得衰在一秩 藏之篋中……嘉靖十二年 孟秋望前二日 靈芝山人 書于善補堂>에 이렇게 詳記해 두었다.
- 5) <內集> 卷一, 1葉 <過古先生閣>. 月影臺. …孤雲遊跡總成煙 只今唯有高臺月… >, <遺集> 卷二 外篇, 4葉 <仲春望日與吳仁遠曹敬仲陪宜寧遊月影臺><別集> 卷一, 3葉 <過青谷寺, 숙부를 따라가, 3·4형이 讀書를 한 곳>
- 6) <遺集> 卷二, 6葉, 續集 卷一, 1葉 <登尙州觀水樓> 內集 卷一, 1葉 <礪石樓> 別集 卷一, 6葉 <昆陽……遊鵲島是日論潮汐><遺集> 卷二, 14葉<浣沙溪餞席> 外. 이때 親戚을 訪問한 곳은 宜寧 妻家에 가서 白岩東軒과 梅花詩를 읊었고 茅谷(後谷)에서는 從妹夫 吳彦毅와 查丈(宜寧縣監 號三友臺)을 뵈고 詩를 唱酬했으며(續集 卷一, 1葉, 次吳仁遠偶吟韻, 遺集 卷二, 5葉 十六日吳宜寧 竹齋對月小酌, 外 數篇), 檜山(現 昌原)에 가서는 從姉氏와 從甥姪과 더불어 詩를 읊고 (檜山曹敬仲壽母生辰次敬仲韻) 함께 觀勝하였음.
- 7) 이 때 交遊한 人物 魚灌圃를 위시하여 安注書, 姜應奎, 姜晦叔, 余琛, 鄭紀南, 釋惠忠이 있음.
- 8) <別集> 卷一, 3,4葉 <昆陽次魚灌圃得江 東州道院 十六絕詩 및 序와 詩注>
- 9) 前掲注 4參照

어가서 몇 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곧 단장의 금회를 읊고서는¹¹⁾ 하향을 해 버렸지만 京試를 외면했을 뿐¹²⁾ 완전히 물러나 있을 생각은 아니하였다.

퇴계의 평생사에 있어서 이 계사년은 그의 문학적인 위치, 입사, 출신, 26세 때의 平生志願을¹³⁾ 장차 실현하고자 결단을 내린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연보에는 남행 기록이 전부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河西金麟厚와의 契合 講磨 사실을 하서연보와는 달리 10년 전의 癸未年條에 수록하고 있고¹⁴⁾, 남행록 시는 109수중 원집인 문집 내집에는 단 3수¹⁵⁾ 만이 실려 있고 그밖에 印刊된 별집과 속집에 26수가 輯錄되어 있으며, 필사본인 유집에 47수, 逸詩 목록에 약 16수가 있음을 헤아릴 수 있다. 나머지 17수는 시제마저도 알 길이 없다.

특히 남행록의 여러 詩注와 序跋은 서행록 시의 <夢中得一聯覺而足之并序>¹⁶⁾의 後跋과 함께 퇴계의 臥遊와 더불어 계사년의 행력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더 할 수 없는 소중한 문전임에도 불구하고 문집에 裒輯되지 못하였고 연보에도 실리지 않아서 及第·出仕 직전인 33세의 생활과 사상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말았다.

이 결과는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퇴계학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생애와 문학 및 사상 연구에 있어 계사년 이전의 문학(吟詠 動機 및 詩作史)과 사상형성 및 생애의 방향 설정같은 구체적인 사실 究明에

10) 前掲注 <河西年譜>

11) 《續集》 卷一, 3葉 <葵花>, 同上 2葉 <泮宮>, 《遺集》 卷二, 20葉 <樓上小集>, 同上 <將東歸對月吟懷> 詩 等.

12) 《年譜》 十三年 癸巳 先生三十三歲條.

13) 《別集》卷一, 10葉, 芝山蝸舍詩의 첫 首 拙著, 『退溪家年表』 pp.55~56 參照

14) 《年譜》二年 癸未, 先生 二十三歲條.

15) 《文集, 內集》卷一, 1葉에 癸巳年에 읊은 3首만이 맨 처음에 실려 있을 뿐이다.

16) 《遺集》 卷二, 外篇 21~22葉, 詩는 七言絶句 1首이고, 長文의 詩序와 後跋이 있다.

는 깊이 접근을 못하고 있다. 연보상에 나타난 사실 이외에 시문 저술을 통한 방법론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또 시도된 바도 없었다.

퇴계의 시에 담겨져 있는 사상과 그 시의 序·跋·注에서 밝히고 있는 평생사는 연보 안에 수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미拙著「退溪家年表」에서 정리 편술해 놓았거니와 평생사적 의미가 적지않게 크기 때문에 계사 남행록을 감히 상술하여 퇴계학연구의 자료로 補俾코자 이로써 청고에 답하기로 했다.

본고에서는 임진, 계사년의 남행 전후의 생활상을 살핀 다음에 남행의 동기, 남행 일정과 寄旅, 남행록(시) 재편집, 평생사적 의미를 부주·고찰하는 순으로 논술하려 한다.

이 남행록은 노정을 좇아 필자가 1987년 7월과 1989년 2월의 2차에 걸친 현지 답심을 통하여 유족지의 보존 상태와 인멸된 곳의 유지도 탐색하였으므로¹⁷⁾ 논술해 가는 사이사이에 답심록을 부연하기로 한다.

퇴계의 계사년 남행록이 유존하고 있거나 문집 원집(내집)에 모두 실려 있다든지 연보에 그 사실(南行日과 南行 唱酬詩)이 修譜되어 있었다라면 이미 누군가에 의하여 연구 공개되었을 것이고, 출사 1년전의 행력이 평생사의 중요한 일부로서 세상에 알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남행록은 실전하였고 연보에 빠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멸되어 世人이 전혀 알지 못한다.

남행 사실이 기록된 詩序와 後跋이 있는 시가 내·외·별·속집 어느 문집에라도 실려 있었다라면 진작 간행이 되어 세간에 알려졌을 텐데, 필사본인 유집에 편집되어 있었던 까닭으로 樊南에 비장되어 오다가 도

17) 1987年 1次 때는 宜寧 中心의 踏査를 하였고, 1989年 2月 2次 踏査 때는 退溪가 南行했던 時期에 맞추어 路程에 따라 探蹟하였다. 이때 晉州, 馬山(昌原郡 熊川, 乃而浦 ; 薺浦), 泗川(昆陽), 昌原(合浦, 會原, 檜山, 檜原), 咸安, 宜寧 等地의 길 引導는 蓮庵工專 李源綱, 慶尙大學校 許捲洙 두 教授가 해 주었고, 그 밖에는 探問踏査를 하였는데 鄭錫胎, 許捲洙 두 教授가 三嘉, 陝川, 高靈, 伽川, 星州 等地를 隨行해 주었다.

산전서가 印刊됨으로써(癡翁 李彙溥에 의하여 1869年 告成하였고, 宗宅 光明室, 溪南에 各一帙씩 소장해 왔는데, 完본인 樊南本이 李源弼代까지 유전돼 온 것을 1980년 12월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문집을 편찬할 때 편찬자의 의식에는 퇴계가 젊었을 때에 읊은 시는 장년기와 노년기에 읊은 시들에 비하여 도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덜 원숙하다고 인식하였고, 또 시의 양이 浩漭하여 모두를 신지 못하고 選擢을 하면서 만년의 시에 무게를 더 두어서 편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 까닭은 퇴계의 초기 청소년 때의 시가 입지와 사상 발전 과정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연보에 수록되었거나, 나중에 간행된 속집에 실린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고, 該 33세의 계사년 시중에서도 선산 봉계리를 지나면서 三隱의 한 분인 吉治隱(諱·再)의 旌閭를 보고 느낌을 읊은 <過吉先生閭>와 창원(檜原) 從姉氏를 가뵈고 從甥姪 曹允愼, 允懼 형제와 함께 마산(齊浦)에 가서 孤雲 崔致遠이 시를 읊은 월영대에서 고운의 遺蹟을 읊은¹⁸⁾ <月影臺>시를 내집 첫머리에 실어놓은 것을 미루어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고려의 은자이고 金江湖(諱·叔滋)의 사문인 治隱先生에 대한 시이고, 여말 유가의 한 분이며 문사거장으로서 절세 은둔하여 濟世 抱恨으로 생애를 끝낸 孤雲 선생에 관계되는 시이기에 33세 때의 百數十首 가운데 <矗石樓> 시와 더불어 三首만을 採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집을 편찬할 당시의 편찬자들 생각에는, 早期에 원숙한 퇴계의 시 문학과 灌圃 魚得江의 동주도원 시의 次韻에 담겨져 있는 평생사(治教

18) 오늘날 慶南大學校 入口에는 崔孤雲의 遺跡碑가 碑閣과 함께 서 있다. 그러나, 退溪가 崔孤雲의 故事를 詩로 읊었음으로써 月影臺가 世人에 注目받고 後世에 傳해진 점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을 뿐아니라 退溪의 月影臺 吟詠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도 記錄해 놓지 않았다. 退溪의 月影臺詩로 말미암아 崔孤雲의 遺蹟地가 世上에 드러났음을 적고 退溪의 月影臺詩도 그 곳에 새겨 놓아야 事跡이 올바르게 전달된다.

兼全)적 의미라던가, 노시가 관포선생에게 초청을 받아 곤양(山)에 가서 시를 和韻 唱酬하리만큼 언지와 攄事詩의 대가인 퇴계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과의 복시를 마치기도 전인 퇴계를 어관포가 초빙하여 交遊하면서 시를 唱和하였다는 사실은 퇴계의 생애사적 의미로 보아 작은 사건이 아니다. 특히 어관포의 시를 차운한 시와 그 뒤의 행력에는 주목할 일이 많다.

다음으로 남행록이 현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사 남행록을 필자가 재편집하는 요령에 관하여 먼저 설명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문집(내, 외, 별, 속, 유집)의 시권과 逸詩目錄 중에서 남행록 시라고 인정되는 시는 남행 사실을 기록한 詩序, 附注, 後跋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찾아 뽑고, 다음으로는 시제에 기록한 연월과 시권에 표시해 둔 계사년 치의 시중에서 남행 시기와 그 계절이 일치하는 내용의 시를 찾아 내었다. 끝으로 퇴계의 남행 기록 중에는 중년에 읊은 시도 많이 있는데 주로 의령 처가와 재취 처부모가 한 때 寄寓한 安陰 迎勝村(경남 거창군 위천면 영승리)에 가서 읊은 것이고, 中途인 三嘉 등지에서 읊은 시도 있으나, 의령과 증도에서 읊은 시는 내용과 시기를 엄밀히 분석하여 남행록과 구분하였다. 그리고, 극히 미묘 애매하고 미신다운 시는 역지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앞으로 새로운 典據와 자료가 나타나거나 새 정보를 얻으면 첨삭 개편할 것이다.

II. 南行 前의 事錄과 藏身

33세 계사년 이전인 신묘, 임진년 事錄이 연보상에는 극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의미성이 부족하여 志行과 관계있는 내용을 26세 병술년부터 연보와 拙著 『退溪家年表』 안에서 발췌하여 정리해 본다.

- 26세(병술, 1526)
 - 四兄 貞愍公(名·瀼, 號·溫溪)이 성균관에 입학하자 母夫人을 모시기 위하여 兄舍로 入舍하다.
 - 吾事, 吾業(平生事)을 표명한 山居詩를 읊다.
 高齋瀟灑碧山傍 祇有圖書萬軸藏
 東澗逸門西澗合 南山接翠北山長
 白雲夜宿留簷濕 清月時來滿室涼
 莫道山居無一事 平生志願更難量
 往存丙戌歲 家兄遊泮宮 余侍親在兄舍 嘗於西齋吟律 … 以寄兄亦和之
- 27歲(丁亥, 1527)
 - * 秋赴慶尙道鄉解進士試居首生員第二
 十月子榮生
 十一月七日夫人許氏卒
- 28歲(戊子, 1528)
 - * 春中進士會試二等
 - 6월에 「清涼山白雲庵記」를 짓다.
- 29歲(己丑, 1529)
 - 碧梧 李文樾과 함께 성천사에서 독서하다. 詩「聖泉寺示李大成」을 읊다.
 - 金澤卿, 南敬仲과 함께 청량산에 가기로 하였으나 눈 때문에 길이 막히고 또 병이 나서 못가다.
 往在己丑金澤卿南敬仲同遊清涼山余有追尋之約而冰雪路阻病不得往
 以詩寄謝云 <逸詩目錄>
- 30歲(庚寅, 1530)
 - * 聘夫人權氏 奉事碩之女
- 31歲(辛卯, 1531)
 - 月瀾寺에서 독서하다.
 (丙午年の 詩「寓月瀾僧舍書懷 · 十五年前此讀書」가 있다)
 - * 六月子寂生
 - 靈芝山麓의 陽谷에 芝山蝸舍(뒷날 陽谷堂이라 부름 … 李國樾에게 준 후)를 신축하여 移居하다. 堂名은 善補, 號를 靈芝山人이라 하다.
 - 傍字韻의 「芝山蝸舍」시를 읊다.

卜築芝山斷麓傍 形如蝸角祇身藏
 北臨墟落心非適 南挹烟霞趣自長
 但得朝昏宜遠近 那因向背辨炎涼
 已成看月看山計 此外何須更較量

<文集 別集, 卷一, 葉10>

- 가을에 龜巖 黃孝恭이 연경에 가므로 시를 읊어 송별하다.
- 32歲(壬辰, 1532)
 - * 先生自中司馬試 無意舉業 兄大憲公白母夫人勸之赴學 是年文科別舉 初試 居第二 自京還鄉 宿路邊村舍 夜中遇盜 同行驚惶失措 而先生 凝然不動
 - 겨울에 곤양군수 관포 어득강로부터 초청을 받다.
 (이 招請典據는 계사년 남행 시에 읊은 「寄魚灌圃」시의 「憶我去年 冬 再拜公得書 開緘長跪讀公書 招我遠遊勿懷居 新春作意向南行 千里宜春來駐驢 昆山相望不可見 幾回欲去仍躊躇 慕公日日誦公詩…」이다.)
- 33歲(癸巳, 1533)
 - 봄에 남행하여 시 109수를 짓다.
 <위의 略譜 머리의 符號中 *는 연보에 실려 있는 기록이고 ·은 필자가 追補하여 연표에 정리해 둔 事錄이다.>

이 사이 퇴계의 생활에는 변화가 많았다. 가족의 生卒과 喪配, 續絃이 있었고, 侍養과 유모(필자는 第二子인 棠가 출생후 한 달 미만에 부인 허씨가 몰하였으니 母夫人 侍養과 겸하여 유모를 들여 앉힌 것으로 보았고, 이 부인이 寂의 모친인 側室이라고 추정한다. 第三子 적의 출생이 권씨부인 入門後 그리 오래지 않은 6월에 있었고, 또 권씨부인을 맞아서는 三栢堂 兄舍에서 母夫人과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한집에 동거하지 않고, 곧 芝山蝸舍를 지어 별거케 한 사실로서도 판단이 가능하다.) 맞이 등 어려운 고비를 겪었다. 분가했던 집을 버리고 兄舍에 들어가서 안주하지도 못하고 5인 가족을 둔 채 別舍를 卜築해 양가를 오가면서 治家해야 하는 번잡한 가정 생활도 퇴계는 감내했었다.

그런 와중에 퇴계는 진사, 생원시와 진사회시에 합격했고, 계사년 바

로 전인 임진년에는 서울에 가서 문과 별거 초시에 등과하였다.

그 어려운 가사 형편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聖泉寺, 月瀾寺, 淸涼山 같은 곳에서 독서를 하였다.

퇴계의 이러한 고난 극복의 일이관지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여기서 조금 기술해 둘 필요가 있다. 관포가 아직 만난 적이 없고 급제도 출사도 아니한 젊은 퇴계를 초청한 연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밝혀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문과 초시 별거에 합격하고 귀로 촌가에서 도독을 만났을 때 凝然不動할 수 있었던 雄邁膽氣의 姿望이 30대 초의 難·靜을 초극한 퇴계상으로 보이거니와, 그보다 앞서 20대 후반에 읊은 山居詩는 그의 평생사업의 꿈과 襟度를 표백한 것으로 의미가 심장하다.

퇴계의 심상과 사상은 일찌기 소년기로부터 읊은 <石蟹, 野塘, 安彦驛板上韻, 風雪, 朱子馬上雪韻, 西齋>¹⁹⁾ 시 등에서 잘 나타나 있으나 출사 전인 퇴계의 聲華를 관포가 어떻게 숙숙히 알고서 퇴계를 초청했던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다음은 관포 어득강이란 인물에 대해서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

III. 灌圃 魚得江과 退溪의 交遊

魚得江은 1470년(경인, 성종 1년)에 나서 1550년(경술, 명종 5년)에卒하여 81세를 享壽하였다. 자는 子舜, 子游라 하고 호를 灌圃, 또는 渾沌山人이라 했다. 지금의 경남 사천(옛날은 곤양 또는 곤산이라 하였음) 출신이다. 본관은 함중이고 부친은 문손이다. 성종 23년(1492, 임자) 진사시에 합격하고 연산 1년(1495, 을묘)에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내직으로는 장령(1510), 헌납(1518), 교리(1521), 대사간(1529)을 지냈으며, 외직으로는 영천군수, 흥해군수, 곤양군수,

19) 拙著, 『退溪家年表』 p.48, p.53, 別集, 卷一.

함양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명종 4년(1549)에는 嘉善大夫에 陞次하여 上護軍이 되고 여러 요직에 천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542년에 부사과로서 書肆의 설립과 各道別로 초시를 실시하라고 상소를 하기도 하였다. 文名이 뛰어난 분으로 그의 시는 퇴계가 “於詩尤長於律 而絕句往往有杜少陵(甫)之節拍 奇古凌厲豪健頓挫 無世俗腥腐塵埃之氣”라고 평하였다. 그가卒한 8년 뒤인 1558년(무오)에 관포의 시집(문은 冥鴻亭 上樑文 일편 밖에 실리지 않음)을 간행할 때 퇴계가 발문을 지었는데, 청요직한 금마옥당도 싫어하고 산수연하를 즐겨, 농사짓고 소금 만드는 시골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였다.²⁰⁾

퇴계의 관포평은 몰후의 평이었으나, 그의 재세시에 交遊한 인물로 보아서도 사림중에 중망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晦齋 李彦迪과는 자주 시를 唱酬하였으며 道契를 맺은 사이였고²¹⁾, 慕齋 金安國 과도 酬唱 교의를 하였으며²²⁾ 문장이 뛰어나고 강직했던 寓菴 洪彦忠 과 또 창조성이 남달랐던 愼齋 周世鵬과도 가까운 처지였다.²³⁾

퇴계의 남행록 시에서 상술되겠지만 관포가 홍해군수로 재직중에는 도원을 설치하여 官衙에서도 군민이 教化(育)에 힘을 기울인 업적은 높이 평가되고 기록해 둘 만한 일이다. 퇴계가 관포의 「東州道院十六絶」에 次韻하면서도 그 업적을 기리었는데 관포집을 일명 동주집이라 한 것만 봐도 時工 쪽보다 실천도의면의 공과가 더 값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관포가 퇴계를 초청해서 자기의 시에 화답케하고 곤산지방의 文士를 招致해 鵲島, 浣沙溪 등을 찾아 함께 유람하면서 시를 읊고 종유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시를 잘 하고 사마시를 거쳐 대과 초

20) 《灌圃集》<跋>. 灌圃魚先生 生有拔俗之標亂 不令退治 不求進之 以玉堂金馬非喜也 居之以州縣 米鹽非耻也 漢陰之忘機 東方之詼諧 有山水烟霞之癖 而終享其樂 其爲人何如耶.

21) 《灌圃集》, 四十四葉 <送李復古參議尹全州>, 同 追錄一葉 <奉呈晦齋道契>.

22) 同詩集, 五十七葉 <和呈慕齋>.

23) 同 三葉 <次洪直卿>, 同 五十三葉 <次直卿>, 同 四十一葉 <寄昆山守周景遊兼諫挺然>, 同 五十葉 <周景遊>.

시를 마친 젊은 퇴계와 함께 방장산에 쌍계사 같은 곳을 찾아 마음껏 시를 짓고 싶은 것은 그의 산수벽이라 하더라도 대사간을 지냈고 현직 군수인 63세의 노인이 30세나 연하이며 아직 급제 전인 퇴계를 만나고자 한 것은 사모의 정이 어지간 하고서는 서간을 보내어서까지 만나려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관포가 시를 좋아한 문학적 藝道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퇴계를 만나보려한 연모가 두터웠을수록, 초청이 적극적이었을수록 그 시점의 퇴계의 학문과 시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았음을 명증하는 것이 된다.

다음은 관포가 퇴계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초청하기에 이르렀을까 하는 의문에 답해야 하겠다. 두 분이 주고 받은 서찰이나, 郵信을 이용한 시의 唱酬도 임진년까지는 없었다. 在朝 在野에서 상호간에 통정의 痕跡이라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관포의 고향이 곤산이고 퇴계의 처가가 의령이며 종매가 두 집이 회원과 함안이었으므로 간접적으로 서로 先聲은 들을 수도 있는 처지에 있었다. 퇴계가 시에서 ‘慕公日日誦公詩’라 한 것을 보아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관포의 시를 이미 읽고 있었다.

간접적으로 관포가 퇴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리라는 추리는 다음 몇 가지 근거로서 가능하다. 관포가 대사간으로 있을 때인 1529년 경에 퇴계의 妻伯祖 訓練院判官 松窩 許元弼의 墓碣銘 并序를撰한 일이 있다. 이때 퇴계는 영주 사일(현 영주시 조암동)로 장가간 지 9년째 되는 해이다. 영주와 의령과 곤산, 또 관포가 출사하고 있는 서울까지는 너무도 떨어져 있는 거리이다. 그러나, 퇴계의 장조부 진사 禮村 許元輔는 고성에서 의령으로 寓居하였지만 松窩 후손인 맏집은 世居하던 고성에 그대로 있었다. 고성과 곤산은 지호지간이라 어, 허씨 양문은 서로 밀접한 교분세가로서 서로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을 처지에 있었다. 따라서 관포에게 퇴계가 소개된 것은 퇴계의 처가 쪽의 통로였음이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퇴계는 혼인후 10년 미만에 처가 허씨가문으로부터 상당한 期望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퇴계가 관포에게 소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었다. 《灌圃集》에 보면 <書曹舜卿詩軸·名致虞>²⁴⁾이란 시가 있다. 이 시의 주인 曹致虞는 퇴계의 숙부인 松齋 李堦의 사돈이다. 송재의 서군 曹孝淵은 조치우의 아들이고 퇴계의 종자형이다. 조공은 회원에 살았으므로 남도 사대부들로서 서로가 교분이 있고 조공은 翰林(호·淨友堂, 대구부사와 한림을 역임함. 한림 曹末孫의 子, 감사 雲巖 金緣의 처삼촌임)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관포와의 詩交가 잦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정우당은 查下生인 퇴계를 숙지하였을 것이고 鄉會나 仕路에서 관포와 만나 자주 퇴계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퇴계가 남행 길에서도 의령과 함안, 회원을 거쳐 진주를 다녀 곤양에 간 것도 미리 어관포에 대한 예비 지식을 가지고 갔으리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²⁵⁾ 그리고 퇴계가 사장인 정우당과 종자형에게도 許愛와 重待를 받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퇴계의 인물평이나 인간상을 논할 때 지금까지 흔히들 소시 때에 모부인의 경계와 송재의 遺託, 백중숙씨의 舉試 勸諭 등 가족의 말만을 인용해 왔는데, 남행록과 관포와의 만남 사실을 구명해 보면 처가와 인척의 중망도 이와 같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IV. 退溪의 南行 紀行과 南行錄

1. 日程과 寄旅

남행 일정은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시제나 부주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퇴계가 손수 일록을 썼는지 시만을 일정에 따라 지었는지는 수록이 없어서 확실함을 단정할 수 없다.

일자가 분명한 것을 추적해서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일자와

24) 《灌圃集》, 五十九葉, <書曹舜卿詩軸 名·致虞>

拙著, 『李退溪家書의 總合的 研究』, p266, 日本 京都中文出版社刊. 1991.5

25) 後述 南行錄 日程

노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은 시제임.>

1월 29일 예천 (29일 襄陽道中)

양양은 강원도에도 있으나 여기서는 예천 古號로 봤다. 퇴계가 강원도에 간 것은 42세 때인 1542년(임인) 3월 19일에 충청도 구황어사를 배명받아 일을 마친 후 강원도어사로 출도한 것은 그해 8월이었기 때문이다. ‘29일’을 1월로 보는 이유는 이 시의 둘째 구에 “早春下旬時”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구의 “我行襄陽道”와 시제의 <襄陽道中>은 <예천으로 가는 길에서> 이 시를 읊은 것이고, 남행록에 이어서 서행(서울)을 하고나서 서행록 후발에 쓴 “... 是歲癸巳春 余南遊宜春 ...”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남행을 시작한 날은 1월 27, 8일로 보고자 한다. 도산에서 출발을 27일에 하면 안동에서 자거나 무리를 해서 풍산을 지나 고자평 자씨택까지 갈 수 있다. 고자평까지 이틀 일정을 잡았다면 27일에 출발했을 것이고 하루 일정을 세웠다면 28일에 출정한 것이 된다. 아무튼 고자평 누님택을 떠나 예천길에 오른 것은 1월 29일이다. 예천 누님택에 퇴계가 들러 묵고 갔음을 추리할 수 있는 근거는 퇴계의 우애심(老境의 자씨에게 반찬을 보내고 극진히 모셨다는 기록이 많고, 66세 때는 공조판서를 사퇴하고 환가할 때도 묵었기 때문이다.

1월 30일 상주 낙동 (登觀水樓)

지금은 경북 의성군 비안면이 되었고 재일교포 의성출신 독지가가 누를 중건했으며, 퇴계의 시관과 많은 시를 새로 새겨 걸어 놓았다. 필자는 1990년 2월 18일에 李源奭과 함께 가서 중건공사가 진행중임을 보고 왔고, 그해 7월 13일에는 鄭錫胎, 李世東과 함께 준공한 관수루에 올라 보았다.

2월 3일 성주 (三日渡伽川)

가천을 건너 고령, 합천을 지나 의령 치가 마을에는 3,4일 후인 6,7일 경에 도착했을 것이다. 일자가 주기되지 않아서 안동을 경유할 때와 의령에 묵을 때 읊은 시는 기사년 남행시와 그 뒤에 갔을 때에 읊은 시와의 분별이 어려워져 남행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퇴계 시작사상 저 유명한 최초의 <梅花詩>는 이 때 읊은 시이다.²⁶⁾

2월 11일 의령 단암진 (十一日渡丹岩津)

함안 모곡(後谷 ; 소지명·뒷골)의 종자형가에 들러 사장인 전 의령현 감 竹齋 吳碩福과 종매부 吳彦毅(字·仁遠)를 만났다. 거기서 지척지간에 있는 또 하나의 종매가인 회원(지금의 창원)의 조효연가에 가서 자씨 내외를 뵈고 從甥姪 曹允愼(字·敬仲), 允懼(字·誠仲)를 만났다. 이로부터 함안의 오언의와 회원의 조씨 형제하고는 동행하는 길동무가 된다. 어느 집에 언제 가서 며칠씩 묵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다.

2월 15일 마산 유람 (仲春望日與吳仁遠曹敬仲陪宜寧 查丈吳碩福 遊月影臺)

" (月影臺)

" 창원(日暮自臺前泛舟抵檜原)

마산에서 구경을 마치고 저녁에 배를 타고 창원으로 건너갔다.

" (次吳宜寧記遊韻)

창원에서 하룻밤을 쉬면서 사장 오죽재가 읊은 記遊詩韻으로 차운하여 읊었다.

2월 16일 모곡 (十六日吳宜寧竹齋對月小酌)

죽재를 모시고 다시 모곡 매가로 돌아가서 밤엔 술을 들며 月夜의 감흥을 읊었다. 이 밖에 여러 시를 읊다.

3월 3일 의령 (三月三日)

이 날 밖에 나가 계담을 찾고 도굴산에 올라 백암도 구경하였다. 보제사까지 갈 계획을 했다가 해가 저물어 중지하고 합류한 강씨 二人(名不明)이 갖고 온 술을 암하의 아름다운 홍징벽에서 유상곡수를 즐기며 마셨다. 퇴계는 이 날 여기서 의미심장한 다짐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중요한 결심을 <三月三日出遊> 시에다 적어 놓았다. “靑雲白石窮幽探”의 득의를 얻은 것은 다행이었고, 미륵과 함께 무리되어 사는 것은 본래 뜻이라서 “買斷烟霞結茅庵”할 작정이라 했다. 퇴계의 結茅庵은 芝山蝸舍가 시작이 아니었고(그것은 再娶 분가를 위한 방편이었다), 養眞庵과 寒樓庵의 結屋이 진작부터 지냈던 소지의 실행임을 <出遊> 시에서 보여

26) 拙著, 「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 p.173. 附注 鄭錫胎編 「退溪先生の 梅花詩譜」參照.

준다. 처가에서는 보름 이상을 묵으면서 <宜寧寓宅東軒韻>, <東軒池上雨>, <自巖新東軒臨池小酌>, <樓上醉吟>, <次韻友人見韻> 등을 읊으며 여러 詞友들과 사귀었다. 십년여 사귄 余琛이 苦窮을 극복하면서 학업을 정진했으나 병환으로 폐업하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기어 「贈余國珍并序」시로 위로하기도 하였다.

3월 12일 의령 (送山人惠忠 并序)

이 시는 원래 10장이었으나 유집에는 4장이 남아 있다. 서문에는 어떤 승려가 찾아왔기에 맞이해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어서 서를 쓰고 시를 지어 주었다 하였다. 또 살을 태우고 인륜을 끊으며 衣, 食, 住, 言 등의 법은 유불이 상반되는데도 유가가 노불을 흠모숭앙하고 즐겨 상종하는 것은 괴이하나 그 까닭이, 범인은 處身 心術이 물질에 유혹되어 정신을 빼앗기는 욕심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노불은 思精專, 識高明하는 심사구도에 있으므로, 우리들 마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먼저 터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물며 말을 하는데도 그 뜻을 터득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하고 忠師에게 정진을 당부했다.

3월 18일 함안 모곡 (茅谷次吳宜寧韻)

1989년 2월 16일 모곡(現洞名 葛田里)을 탐방했으나 오죽재의 유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서쪽 골안 담안의 고려촌(茅谷里, 塙內)에는 재령이 씨 落南以後(麗末, 茅隱 李午가 入鄉祖)의 宗宅과 유적(高麗世庄紫薇園과 亭子, 友竹軒, 景茅堂)이 잘 보존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동구에는 茅隱公의 둘째 손자인 栗澗 李仲賢의 遺墟碑와 함께 퇴계의 杖履所에 景陶壇碑가 서 있었다. “昔在嘉靖癸巳 吾先君退陶先生南遊中 三友臺吳公碩福於威安之茅谷里 公卽先生從姊婿彥毅之大人也 臺在竹間 小齋之隙地而累不築之 取李白詩對影成三人之句 因以爲號者也 ……”를 響山 李晚燾가 짓고 安商說이 써서 1911년 9월에 비를 세워 두어 그 옛날 퇴계의 남행을 기념해 두고 있다. 죽재의 손자 吳守盈(號·春塘)과 증손 吳濬(號·竹牖)은 퇴계의 문인이다.

3월 20일 창원 (二十日曹敬仲齋舍與仁遠諸人待金綏之<名·綏, 號·濯清亭, 曹致虞의 兄 致唐의 女婿인 金緣의 弟이며, 아들로는 山南 富仁, 養正堂 富信, 雪月堂 富倫이 있다>)

“ 마산(是日綏之來齊浦期明日會于此綏之竟不至)

“ 마산 무학산(是日與仁遠敬仲誠仲散步至鼻巖)

“ 마산 무학산 鼻巖(鼻巖示同遊)

전에 월영대를 보노라고 마산에 갔었지만 이날은 오천에서 새로 오는 濯淸亭 金綏와 함께 비암에 오르기로 한 날이다. 濯淸亭이 오지 않아서 조공 형제와 종남매가 함께 비암에 오르게 되었다. 무학산에 올라서 남해를 전망하는 것도 호연 장관이려니와 3월 20일경에 산 서쪽 비암 일대에 군림하여 피는 참꽃 진달래는 賞花遊山客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가경이다.

필자는 두번 시도하여 천만 요행으로 비암을 알고 있는 유일한 마산 노장(沈基柱翁)을 만나 ‘부처바위’로 그 이름마저 바뀌어버린 비암(코바위)을 1989년 2월 12일에 탐색해 놓았다. 일행 50여 명(안동, 상주, 포항, 부산, 마산, 김해, 진주, 밀양, 창원 등지에서 모인 회원) 중에 겨우 12명이 진달래의 밀림을 뚫고 들어가 비암에 이르러서 퇴계의 시를 펴들고 절경을 관상한 후 비암계를 조직해 두었다. (매년 3월엔 여기를 찾기로 다짐하였으며 다시는 인멸하지 않도록 1993년 4월 11일에는 바위에 이름을 새겨서 바위 한쪽면에 시멘트로 붙여 놓았다.)

3월 21일 함안 (二十一日次仁遠)

이 날 이후 진주의 노정에 들어선 것 같다.

3월 26일 진주 (三月二十六日訪姜晦叔姜奎之同寓法輪寺路上作)

법륜사로 가서 두 姜公과 함께 머물 약속을 하고 절로 가면서 읊은 시다.

“ 晉州 法輪寺(到法輪寺晦叔奎之皆不在是夜獨宿西窓雨竹蕭蕭
絕有淸致悵然賦此)

법륜사에 이르렀으나 두 姜公이 없어서 비오는 날 밤 홀로 자면서 쓸쓸함을 읊었다.

3월 27일 진주 법륜사 (明日晦叔奎之鄭紀南皆來會同宿)

이 날은 두 姜公과 鄭紀南이 와서 함께 자고 시를 읊었다.

1989년 2월 15일에 필자가 이 법륜사지를 찾아갔더니(문산면 부면장 허운씨 안내) 그 곳엔 무덤과 논피기로 변해 버렸다. 표지도 없고 옛날

에 있었다는 13층 탑은 두방사로 옮겨버려 자취마저 없어졌다.

3월 28일 (又明日與晦叔偕向昆陽別奎之紀南兩同年)

30일(또는 4월 초1일)에 姜晦叔 등 진주 사람과 함께 곤양을 향해서 출발했다. 29일 하루는 진주에서 머무른 것이 된다. 축석루와 월야산 청곡사는 모두 이 동안에 관승하고 다녀왔다고 보아진다. 법륜사와 금산의 청곡사는 다 진주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후 날짜가 적힌 시는 없다. 3월 그믐이거나 4월 초순에 곤양으로 가서 관포를 만나고 작도를 구경하며 시를 읊고 완사계에서 작별할 때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회정에 관해서는 안연역에서 읊은 시 한 수가 있어서 더 이상 밝힐 수 없다. 전체 일정은 정월 하순에 출발하여 4월 초순에 관포를 만나고 회정한 것으로 보아진다. 기록이 없어서 확실한 것을 말할 수는 없으나 이때 金綏의 從姑母夫人 枕流亭 金萬鈞이 단성현감으로 재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金綏와 합류하여 단성을 거쳐 지리산에까지 갈 계획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의 여행은 취소가 되었다.

3월 18일 모곡에서 받은 鄉書가 곧 회정하라는 연락인 것 같다. 동주도원 시주에 적은 관포의 쌍계사 권유도 “因事竟不果”라 했고, 청곡사 시주에서 온계가 귀환해 있다고 한 것과「寄魚灌圃」시의 “鄉書昨到毋賜環”을 보면 四兄으로부터 성균관 유학을 권유받고 곤양에서 남유를 끝맺은 것 같다.

곤양 동쪽 浣沙溪의 餞席에서 관포에게

浣沙溪水鏡光清 落日誰家一笛聲
太守送人人亦去 滿汀芳草不勝情

을 읊어 작별을 고한 후 급급 의령을 거쳐 북상 회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귀가후 퇴계는 온계와 함께 상경하는데 4월 23일에는 서행 길에 올라 영주에 가서 머물고 있다.

2. 南行錄 재편집

퇴계는 계사년 4월 상순에 남행을 끝내고 곧 이어 그 달 20일경에 從弟 壽峇와 함께 귀향했던 四兄 溫溪 李瀼(正言)를 따라 상경해서 성균관에 유학하였다.²⁷⁾ 그러나, 浮薄한 士翫과 태학이 학문하는 곳이 아님을 보고 3개월 미만에 <泮宮> 등 여러 시을 읊고 7월 상순에 귀가해 버렸다.²⁸⁾

이 서행 시에 읊은 39수를 퇴계는 서행록이라 부르는데 대하여, 1월 말부터 4월상순까지 남유 기행하고 읊은 시를 남행록이라 하였다. 남행록이란 이름과 함께 그 解題도 되고 본항의 서장이 되겠기에 7월 12일에 읊은 <夢中得一聯覺而足之> 한수와 13일에 쓴 并序와 後跋을 머리에 원문 그대로 옮겨 놓기로 한다.

夢中得一聯覺而足之 并序

癸巳秋七月 余東來杜門閑居 十二日夜夢 余與景明兄 從王京東出 行一日抵處 山水清麗 臺館儼然 若離宮廢苑 王侯第宅之狀 而無主不加禁鏹 而其御侍器玩供億之具 頗有存者 始自西廂 而入童子一人在側 又有美丈夫數人 侍女數人 迎慰笑語 俄而翩然不見其處 於是迴廊別院 無不周覽 最後到一處 花木芬芳 簾櫳閃晃 便於軒上氈坐啜茶 愈覺神魂灑脫 余吟一聯云云 方欲綴其下吟諷之頃 回視北岡則 兄已在其上矣 余從而登焉 東南騁目則 天高地闊 雲日微茫 飛鳥滅沒 遙岑低糲 莽蒼寥泐 不可具狀 而俯視深谷 窈窕樹石 玲瓏其間 有樓臺飛翼然 采色炫爛 門窓戶闥 歷歷可見 兄扶而顧 余曰 此許某之所遊也 余不知許某之爲何人也 未及問而忽欠伸而寤 既覺了了可記 余頗怪之因叙其事 而足成其聯爲絕句一首 以爲他日之覽云

一帶茶烟隔翠屏 清臺花發夢魂熒
何人院落深如許 一笑渾如到玉扃

27)拙著,『退溪家年表』 p.65, 行3~27, 《遺集》 卷二 外篇, 16葉, 「四月從正言兄西行二十三日龜城次金質夫見戲」.

28) 上揭 《年表》 pp.67~69.

右南行錄 一百九首 西行錄 三十九首 并一百四十八首 余平生不工詩 顧賞嗜之 凡寓目興懷 輒癢此技 吟諷不絕於口 既成人之見者 或欲唾棄 余猶不知愧 以是得嗤笑於人非一 而膏肓之癖 迨不能藥 直可笑也 是歲癸巳春 余南遊宜春 其夏西入泮宮 往返所得哀在一秩 藏之篋中 以資臥遊之興 聞者當絕纓 見者當掩口

嘉靖十二年 孟秋 望前二日 靈芝山人 書于善補堂

남행록 시의 소재 상태와 詩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詩體 文集	五絕	五律	五古	七絕	七律	七古	序	跋	計
內			1-1	1-1	1-1				3-3
外									
別		1-1	1-1	4-19	1-1	2			8-23
續		2-2(1)			1-1				3-3(2)
遺	1-2	5-5(4)	1-1	20-26	9-1	3-3	3	1	39-47(38)
計	1-2	8-8(6)	3-3	25-46	12-13	4-4	5	1	53-76(51)
備考	① 앞의 숫자는 詩題, 뒤의 숫자는 詩首를 가리킴. ② 遺詩 題目과 詩首는 여기서 省略함. ③ 南行錄 詩 收拾에는 差錯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계속 補訂함.								

이제 이 남행록을 여정에 맞추어 전편을 원문대로 편집하지만 差錯이 더러 있을 줄 믿는다. 추후 보정을 覺悟하고 퇴계학 연구의 자료 확충을 위하여 간혹 주석을 붙여서 남행록 편성을 시도한다.

二十九日襄陽道中

我行襄陽道 早春下旬時 東風動官柳 鵝鴨散川池 郡城高蒼蒼 樓觀鬱參差 家家好修整 簾幕半空重 此地信繁華 兇歲猶若茲 習藝誰家郎 翻身橫且馳 冶遊少兒女 歡笑何委蛇 汝輩慎驕緩 天災寧不知 富者苟朝夕 貧者已流離 路中僵仆人 不救妻與兒 長官豈不憂 廩竭知何爲 每見情懷惡 佇立久嗟咨 我行已草草 馬虺僮僕飢 晚憩聊自慰 來尋驛亭詩 沙川遠以微

落日風更吹 作客知處困 渡橋思防危 入谷投人家 猶能供暮炊 <遺集卷二, 外篇, 葉1>

注 ; 襄陽은 예천의 古號이며, 「早春下旬時」가 남행록 跋의 시기와 일치한다.

襄陽이 강원도에 있는 지명이므로 강원어사 행에서 읍은 시라고 할 수 있으나 충청어사는 임인(1542) 3월 19일에 임명되었고(中宗實錄, 壬寅三月十九日己亥條) 강원어사는 그 해 8월에 나갔었다. 그러므로早春은 남행시를 단정하는 근거가 된다.

晦日登觀水樓

萬頃鷗波白點青 春風如對彩雲屏 倚欄回首斜陽裏 默數長亭與短亭 <遺集卷二, 外篇, 葉2>

注 ; 관수루는 상주 낙동에 있다

시제의 晦日로 보아서 1월 30일에 등루하였고 춘풍은 남행시와 계절이 맞다. 관수루 시는 또 한 수 있는데 연조가 적혀 있다.

登尙州觀水樓 樓在洛東江東岸 ○癸巳

鑿道緣岸北 飛樓翼岸東 試登槎上漢 久立腋生風 野帶浮嵐迴 江含落照紅 方知塵世 回首羨漁翁 <續集 卷一, 葉1>

過吉先生閭 癸巳

朝行過洛水 洛水何漫漫 午憩望鰲山 鰲山鬱盤盤 清流徹厚坤 峭壁陵高寒 有村名鳳溪 乃在山水間 先生晦其中 表閭朝命頒 大義不可撓 豈曰辭塵竇 千載釣臺風 再使激東韓 扶持已無及 植立永堅完 丈夫貴大節 平生知者難 嗟爾世上人 慎勿愛高官 <內集 卷一, 葉1 ; 先生文集 맨 첫머리에 실려 있다.>

注 ; 1990년 2월 18일 李源奭과 함께 선산 봉계리를 답십하였다.

星州馬上偶吟

曉天霞散初昇日 水色山光畫裏誇 馬首吹香渾似雪 泣殘珠露野棠花 <別集 卷一, 葉6>

三日渡伽川

四野蒼茫欲雨天 南行今始渡伽川 地靈猶是神仙境 歲熟寧知旱魃年 遠勢
依依汀樹際 平分漠漠野中烟 馬啼穿得香林過 翠羽飛鳴却自然 伽川西岸
有林名香林 <遺集 卷二, 外篇, 葉2>

注 ; 가야산 북동에서 흐르는 물이 성주 땅을 흘러 고령을 거쳐 낙동강에 합류한다. 2월 3일에 가천을 건너면서 퇴계는 이제부터 행방을 남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고 ‘南行今始渡伽川’이라 하였다. 여기에 기점을 두면 남행록은 2월 3일 가천을 건넌 시부터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관포의 초청을 받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집을 나선 날을 起算하고 읊은 시를 포함시켜야 했다.

望伽倻山 癸巳

伽倻山在古伽倻 連峯疊嶂高嵯峨 縹氣漫漫接紫霄 疑是聖母凌蒼霞 靈
神異跡訪遺俗 古記相傳莽眞訛 山中間有海印寺 金堂玉室眞仙家 崔仙去
後一千載 白雲寂寂留山阿 古閣唯餘藏灑壺 玄壇不復養芝砂 至今猿鳥嘯
青熒 石徑埋沒蒼苔多 我欲南尋智異問 至道歸來及見山 桃花紅流洞裏青
竹杖喚起崔仙從 以萬素娥彈伽琴 弄雲月一醉 千日遊無何 <別集 卷一,
葉2>

注 ; 가천을 건너서 고령을 향하여 남하하면 오른쪽 서편에 가야산이 있다. 가천은 가야산 기슭을 따라 흐르고 길은 강과 산기슭을 따라 이어져 간다. 산을 바라보며 퇴계는 해인사, 최고운, 홍류동을 생각해 본다. 이 시는 고령 가까이에서 읊었는데 가야출신 우륵의 거문고를 상기시켰다.

陝川南亭韻

春風吹不盡 落日在橋邊 攪得愁情處 芳洲一帶烟
舟臥長橋側 亭高絕壑邊 渚沙白於雪 春水綠如烟 <遺集 卷二, 外篇, 葉2>

注 ; 고령을 지나서 굽이가 많은 높은 재를 넘으면 합천에 도착한다. 남쪽 황강을 건너는 긴다리 위에서 상류쪽을 보면 왼쪽 강변 절벽에 南亭이 달린 듯 서 있다. 여긴 여러 명현의 시가 걸려 있다. 퇴계의 처남인 許士廉(字·公簡, 進士)의 시도 걸려 있다. 퇴계가 차운한 다음 시도 걸려 있다.

南亭次許公簡韻

北來山陡起 東去水漫流 雁落蘋洲外 烟生竹屋頭 閒尋知意遠 高倚覺身浮 幸未名韁絆 猶能任去留 <遺集 卷二, 外篇, 葉2>

原韻「許士廉陝川南亭韻」

鑿得千尋壁 開軒俯碧流 橋橫春水上 舟臥白沙頭 天闊鴈聲遠 江空雲影浮 騎驢倦遊客 回首更淹留 陝川 南亭 懸板詩

注 ; 이 시는 필자가 1989년 2월 18일 직접 답십하여 寫抄하였다.

梅花詩

宜城別占好乾坤 白岩村裏多林園 一春花事未暇論 品題先識梅花尊 高情豈獨臘天開 孤韻不待陽和催 一枝斜倚翠竹場 千樹照映黃金壘 臨池脉脉貯芳意 近簷盈盈增絕致 節士不作風塵容 靜女那須脂粉媚 風吹齊發玉齒粲 雨洗渾添銀海澳 烟濃有時耿簾幕 月落偏宜伴斜漢 翠羽刺嘈感師雄 綠衣倒掛來仙翁 點成粧額壽陽嬌 折寄相思驛吏逢 冰魂雪骨擅造化 暗香疎影絕蕭灑 笛中吹落意不盡 畫裏傳神眞苟且 荒橋水淺不自病 古院苔深還得性 鶯兒自分斷消息 蟻使不敢窺衰盛 已付廣平說素心 更與西湖作知音 風流千古尚如昨 客裏相逢意不任 一般眞趣杳無辨 旅思依依鄉思淺 歌珠

不用鬧檀板 且置清樽供婉孌 永托深盟同皎潔 嘯咏徘徊共清絕 調羹金鼎
是餘事 莫使一片吹香雪 <遺集 卷二, 外篇, 2~3葉>

十一日渡丹巖津 時將訪仁遠

野分千螺岬 江中一葉舟 醉深春到午 愁滿草生洲 候吏輕人過 遊魚怕鷺
謀 南來又東去 爲訪故人遊 <遺集 卷二 外篇 葉3>

注 ; 2월 10일까지 백암 처가에 머물다가 이 날 붉은바위 나루를 건
너 함안 모곡의 중매가를 향했다.

茅谷吳宜寧公竹齋 宜寧命賦

晚節灑神樂有餘 梅窓竹几共琴書 但知白髮顏如少 不信人間歲月除 <遺
集 卷二, 外篇, 葉3~4>

注 ; 吳宜寧의 名은 碩福, 號는 竹齋, 三友臺, 宜寧은 縣監을 지낸
고을 이름이다.

前宜寧吳公竹齋 咸安後谷

碧玉千竿匝翠微 清風六月灑窓扉 退閒高臥無餘事 滿壁圖書自繞圍 <別
集 卷一, 葉2>

注 ; 앞의 시제의 「茅谷」과 뒤의 시제 부주의 「後谷」은 함안 담안바
깍의 마을인 「뒷골」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 수 모두 죽재의 號贊이며
題詩이므로 한데 모아 엮는다.

宿仁遠書齋

酒醒孤枕夜三更 雨打西窓竹多聲 不信鄉心能滴碎 只緣深得故人情 古
人詩 · 無端一夜空階雨 滴碎思鄉萬里心

短屏高架淨無塵 仰酒三杯發興新 索筆題詩非好事 羈懷要說與情親 <遺
集 卷二, 外篇, 葉4>

檜山曹敬仲(允愼)壽母生辰次敬仲韻

萱堂彩服青春麗 烏鳥深情白日長 喜氣似雪生舞袖 歡情如海溢霞觴 思親
易下遊人淚 入夜難收晝燭光 憶得十年前日事 依然惟有竹千行 癸未(
1523)秋 敬仲先君(曹孝淵) 以翰林下鄉余往訪之 至今十一年矣 而曹公已下世 追
思昔日 歡遊之事 杳然如夢 北園脩竹千竿 宛如前日 感念存歿爲之泣下 <遺集卷
二, 外篇, 葉4>

注 ; 함안 모곡에서 창원 종자씨댁으로 갔다. 후주에 의하면 11년전 23세 때에 종자형이 한림으로써 귀향했을 때도 방문하였다.²⁹⁾

仲春望日與吳仁遠曹敬仲陪宜寧遊月影臺

合浦遺基古鎮城 海山深處一臺平 近來聞有蓮池出 疑是新移玉井清 俗傳
近年 因積雨暴水 忽出一池 及故池基也 又有蓮花 自生池中云

注 ; 이 시는 2월 15일에 월영대(지금의 경남대학교입구)에 갔음을 시제가 밝혀주고 있다. 일행은 오죽재 부자와 퇴계, 조운신 등 4인이었다.

月影臺

老樹寄巖碧海堦 孤雲遊跡總成烟 只今唯有高臺月 留得精神向我傳 <內
集 卷一, 葉1>

注 ; 이 시는 문집의 두 번째에 실려 있다. 시의 내용을 보면 퇴계가 여기 찾아왔을 때는 아무 표지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고운이 놀던 자취 내처럼 사라지고, 이젠 오직 높은 대에 달빛만이 비추네. (孤雲遊跡總成烟 只今唯有高臺月)>이라 읊은 퇴계시는 고운의 유족지를 후세에 유전시키는데 기여했음을 알겠다.

日暮自臺前泛舟抵檜原

雲日蒼茫海氣昏 臺前舟放過山原 遠帆孤島無邊眼 短笛長歌不盡樽 <遺
集 卷二, 外篇, 葉5>

29)拙著, 『退溪家年表』 p.53 參照.

次吳宜寧記遊韻

宜寧八十之年 筋力不衰 陪遊勝地 恍如靈真相 故詩中全及

醉倚高臺一笛風 仙凡終古有時通 蓬瀛氣接罇疊迥 塵累緣隨笑語空 昨日
已激王子晉 今朝眞見葛仙翁 相從叩柁滄溟上 眞恐仙山又過東 <同上>

十六日吳宜寧竹齋對月小酌

鋪席庭前待月來 高談併與酒罇開 勝遊昨日猶嫌雨 清賞今宵庚絕埃 翠影
交寒千畝竹 瓊英渾色一枝梅 夜深應有飛仙過 笙鶴來從月影臺 十五日
自檜原臺 乘昏上馬 中道遇雨

白巖東軒濯纓金公韻

萬古英雄逝 追思淚滿裳 當時留醉墨 此日媚韶陽 爲國腸如鐵 誅奸刃似
霜 花明駁川上 慷慨一揮觴 <續集 卷一, 葉1>

詩酒我參社 風塵誰斂裳 客中多意緒 春半暢陰陽 欲去惟雙屐 重來已十
霜 何當三逕裏 日夕玩琴觴 <遺集 卷二, 外篇, 葉5>

注 ; 이 시는 속집과 유집에 흩어져 실려 있다. 시의 題와 韻이 모두
같은 시이다. 읊은 날이 다른 날일 수도 있으나 백암 동헌에 걸려 있
는濯纓 金駟孫 시를 차운한 동계 동운의 시이기 때문에 한데 모아
실는다.

吳仁遠將之安陰過宿于白巖

晚向春溪踏草回 臥聞剝剝故人來 開樽細說平生事 不覺紅燈入夜催 <同
上, 葉6>

仁遠還自安陰

東風欺我負花開 故遣飛香一片回 正要呼樽賞春處 門前忽有故人來 <同
上>

三月三日出遊

梅花欲發江之南 北客來遊初稅驂 旅窓空□轉光陰 不知花柳爭春酣 低頭
 弄筆太寂寞 出門騎馬尋溪潭 溪從閭岫落白巖 中有一洞多烟嵐 山中處處
 桃杏亂 正是青春三月三 行尋細路踏芳草 一壺綠酒令人擔 家家多竹門可
 款 追逐風光亦不堪 折花插帽蝶隨人 採蕨盈懷春滿籃 高吟側頭野鶴疑
 大笑拍手村童諳 青山一色喚我去 □□百舌留人談 興濃隨意適其適 風裏
 散髮吹鬢鬢 詩情入眼盡收拾 造物亦不嫌其貪 村中務急走田翁 樹梢晴熏
 生野蚕 壟臥高低雜砂礫 平蕪掩翳藏鶉鷄 嬌英百態媚施嬭 古木千章老彭
 聃 雲根溲散羸磊磊 彩羽決起飛毵毵 紛紛應接苦未了 勝賞豈必歸禪龕
 是日將往菩提寺 薄晚不果往 斷崖遙望若畫圖 其下積水青於藍 休筇拂苔坐石
 上 倒蘸花影相涵涵 流觴曲水亦多事 自斟螺殼任啜含 晚來追到兩三人 更
 與青洲從事參 岸下一泓澄碧 最有佳致 便坐小酌 近村姜君二人携酒來飲 忘形一
 見卽爾汝 我是人間一奇男 嬉遊直爲景物役 跌蕩寧辭麴蘖耽 丈夫生世各
 有趣 莫將窮達心如慳 龜藏虎挾鄙夫態 牛後墻間且不慙 豈知布衣懷至寶
 荊棘旺張着梗楠 蜚英金馬是何人 困阨泥塗吾所甘 但願身健趁良辰 東海
 傾尊供樂湛 家山萬里在夢想 萍水他鄉好盒簪 蘭亭高會跡已陳 曲江繁華
 驕且婪 我幸於此獨得意 青雲白石窮幽探 同羣麋鹿我素志 欲去有言那能
 暗 會借于公有百錢 買斷烟霞結茅庵 春風吹臥一千日 倘有仙方傳玉函
 <遺集 卷二, 葉6~7>

宜寧寓宅東軒韻

雨中梅蘂落瓊英 誰借長空繫日纓 鳥爲喚人啼更款 花因欺暮暗還明 蒼苔
 院落春岑寂 碧草池塘水滿盈 客裏情悰誰會得 頽然一醉臥前榮 <別集 卷
 一, 葉2>

白巖新東軒臨池小酌

新起高軒勢欲飛 鑿開墻下貯漣漪 一園蝴蝶雙雙舞 三月桃花萬萬枝 斜日
 入簾春寂歷 晚風吹岸草離披 白雲千里心如海 更酌難辭一兩卮 <遺集 卷

二, 外篇, 葉7~8>

次韻友人見贈

春風池館夜如年 一夢瑤臺伴酒仙 況是落花芳草裏 尋君來路興悠然 <同上, 葉11>

樓上醉吟

梨花如雪柳成陰 蝶舞鸚啼勸客吟 記取他年遊賞樂 小樓深處最關心 <同上>

東軒池上雨

池塘春草雨霏微 花落空庭燕子飛 獨倚小闌初睡覺 旅魂鄉思兩依依 <同上>

贈余國珍 併序

宜城 余琛 字國珍 以儒爲業 且患廢疾而家甚貧 暇與余相識至今十餘年 而其窮益甚 一日與余同宿 語及平素終夕爲之感歡 余嘗見東坡贈蜀士楊者詩 其言感憤傷激諷詠之際 使人胸次痛快 而其事與此相類 因用共韻 作此詩以贈之

千金爲熱一瓢涼 此事令人感慨長 不食難同槁壤蚓 酸聲惟學苦吟蟿 那聞裏飯人開戶 只有催租吏突墻 浪道寒翁知倚伏 如今倚伏更茫茫 <遺集卷二, 外篇, 葉8>

送山人惠忠 併序

嘉靖癸巳之春 余客遊宜城 有僧叩門以求見 迎之入 寂然其貌 與之語 鏗然其聲 余其異之 其言亶亶談山說水之外 所深致意者 皆與士大夫遊從之事 袖詩軸數件 其首題則黃參判孝獻也 黃公之於人 小許可及至累篇以贈之 而所言皆理之玄玄者也 余又以是信師之爲人 非庸衆人 可語以心者也 余嘗怪古之名公鉅儒 率喜與老佛者夷狄之一法 其肌髮絕倫 類其衣服語

言飲食居處 皆與我相反 而得罪於名教 若在擯而不齒者 乃反爲之愛慕歆尚 而稱道之不暇 是誠何心哉 今而思之 其亦有說焉 凡人之處世者 汨沒於塵埃 怵迫於聲勢 見外而不見裏 以窮達爲高下 以爵位分貴賤 其胸中方且熱鬧而昏塞 若是者 就有高才明智 可語之以心哉 雖與之語 必不達而已矣 爲老佛者 異於是 必其無求於世 無私於己 不爲事物利害相誘奪 是則其心思必靜而專 其知識 必高而明 其於吾心 盖有不語而先得者矣 何況言之 而有不得其者乎 古之人 所以拳拳而不置者 爲是故也 余於忠師 非有平生之素率 然而求吾詩 吾受不拒者 師亦知之乎 余行世見人多矣 磊落奇偉之人 亦不爲不多矣 然而余之言 不發於彼 而獨發於此者 師不可以不知也 吾師之心 稱其貌出世離俗 飄然有物外之志 伴伽倻之猿鶴 吟閩嶠之烟霞 今之來見我也 其心寧有所挾耶 將非吾所謂其心思靜而專 其知識高而明者耶夫 如是余安得不語之以心哉 而況師所與遊從者 皆一時賢士大夫 以余之疎賤 亦與於其間 茲非其幸耶 故爲詩十章 以與之 師之意若不足 其將歸鷺栖山也 又來而求之不已 於是粗述其所以發言之意 而遣之 按劍之誦其庶 癸巳季春十二日 靈芝山人序

靈鷲高棲雲萬里 天南携出玉芙蓉 釋迦此地安頭骨 聽破荒唐一笑空 時師將歸鷺棲山 山有釋迦藏 頭骨處云

寒食清明花柳節 倦遊顛倒路岐塵 詩僧過我携詩卷 滿袖烟霞別樣春 詩文我似千金帚 情性師如一片雲 閩嶠山前春欲暮 相達不耐卽相分 獨將義分報知音 生死眞能不負心 喚起蘇公作詩序 定分如此更沈吟 師喜遊士大夫間 遇所知者死 必爲之設祭弔哭

<遺集 卷二, 外篇, 葉8~11>

注 ; 詩序에는 10장을 지어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4장만이 전한다. 퇴계가 의령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惠忠이 찾아온 것은 퇴계 명성이 불사에도 널리 퍼져 있었음을 뜻한다.

十八日茅谷次吳宜寧韻

東風吹雨散餘霏 籬落春深杏子肥 忽有鄉音來報喜 歸心已逐白雲飛 是

日得鄉書 <同上>

吳宜寧公三友臺 取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之義而名之也

長年臥不出 綠苔上門隅 既無車馬喧 聊爲靜者徒 中庭作小臺 我友自虛無
遙遙三五夜 皎皎慰情孤 粲然出海來 臨風催玉壺 鬢然在吾傍 俛仰與
之俱 併我作三人 佳期良不渝 舉酒宛相對 及時行樂娛 我飲月爲勸 我醉
影爲扶 人間與碧落 有情各盡輸 酣歌且揮手 孰爲彼與吾 永結莫逆友 無
言道已符 春花映清竹 秋露滴高梧 茲焉輒相邀 眞樂豈異趨 世人恣徵逐
疑我取友迂 不有謫仙人 我言幾成誣 <別集 卷一, 葉2~3>

二十日曹敬仲齋舍與仁遠諸人待金綏之書懷

一壺春酒對青山 箇裏情悰覺白寬 爲有故人來海浦 相邀準擬盡情歡 <遺
集 卷二, 外篇, 葉12>

注 ; 이 시는 원래 4수 1편이었는데 3수는 逸失했다. 曹敬仲은 允愼,
仁遠은 吳彦毅, 金綏之는 金綏이다. 從姑母夫 金萬鈞를 만나러 단성
(지금의 산청군)으로 가는 金公을 曹氏齋舍에서 기다리며 읊었다.

是日綏之來薺浦期明日會于此綏之竟不至

綠葉紅葩最可憐 當年誰植在窓前 待君明日同吟賞 只恐春風曉更顛 窓前
有花 綠葉紅英玲瓏可愛 寺僧皆不知名
一雙胡蝶猶多情 飛舞風花片片輕 此物亦能惜春晚 思君那禁恨怱怱
山房高臥黑牀時 夢裏悠揚化蝶飛 起喚南窓風一陣 灑然如得故人歸 <同
上, 葉12>

是日與仁遠敬仲誠仲散步至鼻巖

共君隨意踏春山 不厭行穿翠巒間 會向山中得奇絕 清泉白石好開顏 <同
上>

注 ; 敬仲은 퇴계 從甥姪 曹允懼의 字이다. 金綏가 오지 않아 4인이

마산 뒤의 무학산에 있는 비암의 절경을 보러 나섰다.

鼻巖示同遊

盤石平如掌 清泉走似蛇 吟詩尋澗草 携酒問山花 春晚羈吟苦 雲移暮景多 耳邊山鳥語 啁啾奈愁何

注 ; 시의 盤石은 아래쪽에 두 범굴이 있고, 수백장 斷崖에서 흡사코 같이 튀어나와 옛날에는 코바위라 했나 보다. 그러나 지금 바위를 비암이라 하는 이는 登山故老 沈基柱 翁 뿐이고 이름도 바뀌어 ‘부처바위’라 한다. 바위 윗면은 손바닥 같은데 함안 쪽으로 흐르는 청천은 뱀같이 달려 내려간다. 그림과 같이 묘사한 진풍경의 서경시이다. 필자가 1989년 3월 12일 2차의 탐사 끝에 찾아내었다. (1993년 4월 11일에는 돌에 이름을 새겨 붙였다.)

二十一日次仁遠

昨日同遊碧澗中 歸來衫袖漾春風 不知扶路人爭笑 醉眼朦朧落照紅 <遺集 卷二, 葉13>

注 ; 이 뒤 4일간의 시는 찾지 못한다. 앞에 甞公 시를 차운한 시중에 이 사이 읊은 시가 있을지 모르나 원시집의 편집으로 보아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많은 逸詩가 이 사이 읊은 시와 회정에서 읊은 시라고 생각된다.

三月二十六日訪姜晦叔姜奎之(名·應奎)同寓法輪寺路上作

有竹人家靜 無花春事空 鄭公居宅古 姜氏表門崇 路人青雲裏 人居碧岵中 廉纖晚來雨 催我倦飢僮 <同上>

注 ; 법륜사는 진주 동북방 지금의 남해고속도로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절이나 지금은 무덤과 논이 있을 뿐 그 터도 없다. 죽충이 있긴 하나 울창하지 않고 옛날의 13층탑은 두방사로 옮겨서 세웠다. 鄭公은 鄭彥輔라고 후주에 밝혀 놓았다. 다른 시에는 鄭紀南이라는

분이 또 등장한다.

到法輪寺晦叔奎之皆不在是夜獨宿西窓雨竹蕭蕭絕有清致悵然賦此一紙相傳知幾時 月牙僧舍有前期 莫嫌羈夢三春隔 但願清歡一夜遲 迷路倦行惟疑段 出門迎笑只沙彌 挑燈獨臥西窓雨 還似琅琅聽子詩 先是 晦叔與我書責以來 宜春近地 三春已過 不相聞問云云故 有莫嫌羈夢三春隔之句 自宜春往法輪取送金山 實有迷路 <同上>

明日晦叔奎之鄭紀南皆來會同宿又明日與晦叔偕向昆陽別奎之紀南兩同年

酌酒山堂朝日鮮 香蔬軟蕨煮山泉 尋君昨夜空牀雨 送我今朝匹馬鞭 聽罷哀鶉揮袖去 踏殘芳草過橋憐 諸君縱欲隨時態 其奈無詩負別筵 僕嘗病世人諱言詩 以隨俗二君豈有其病耶 以此爲戲 <遺集 卷二, 外篇 葉13~14>

注 ; 명일은 26일의 다음 날인 27일이고 우명일은 그 다음 날인 28일이다. 28일에 진주에서 곤양으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臺石樓

落魄江湖知幾日 行吟時復上高樓 橫空飛雨一時變 入眼長江萬古流 往事蒼茫巢鶴老 羈懷搖蕩野雲浮 繁華不屬詩人料 一笑無言俯碧洲 <內集 卷一, 葉1>

過青谷寺

寺在月牙山 往在丁卯年間 叔父牧晉陽 家兄彥章(名·漪) 景明(名·瀆) 以孤幼從之 讀書于此寺 至今二十七年而余來過之 聚散存歿 令人殆不能爲懷爲吟一絕云 時彥章兄下世 且一年景明兄從官于朝 聞來覲家鄉 而滯留滯南州 恐未及歸見故云

金山道上晚逢雨 青谷寺前寒瀉泉 爲是雪泥鴻跡處 存亡離合一漣然 <別集 卷一, 葉3>

注 ; 이 시는 별집 1권에 실려 있는 것을 비롯해서, 松齋先生 연보,

청곡사 문루등에 걸려 있다. 퇴계의 杖履遺蹟碑가 금산의 琴湖 못둑 옆에 서 있는데, 표문에는 퇴계와 온계(溫)가 청곡사에 와서 공부를 했다고 잘못 써 놓았다. 李滄(三兄)로 고쳐야 하고, '1533년 남행 때에 두 형님이 독서한 곳을 찾아 시를 읊었고, 법륜사에 갈 때 여기를 지났다,'고 써야 할 것이다. 松齋先生年譜에는 三兄을 二兄 河로 바꾸어 놓았다. 시도 청곡사에 걸린 글은 문집과 거의 같으나 다른 데 실린 글은 金山을 琴山, 爲詩가 謂是로 바뀌어져 있다.³⁰⁾ <1989년 2월 15일에 필자가 현지 답심 확인하였음>

昆陽次魚灌圃 得江 東州道院十六絕

魚先生嘗守興海 作東州道院十六絕 和者皆名勝 滉見先生於昆陽 先生示以此令和之 滉不敢辭 然所謂東州道院 公與諸公之作已悉矣 今先生來蒞于昆 昆之間僻 不減於興則道院之稱 移之於昆 豈不可也 未審先生以爲何如

已從東海臨南海 不願天仙作地仙 最是公心機事少 海鷗隨處近人前
一綰銅章彌秩郡 偶將遊戲管城毛 如今屬和慙才盡 始覺陽春白雪高 彌秩
卽興海

野人結習在清閒 不信居官能愛山 誰識昆陽吏非吏 年年拄笏對孱顏
心煩野事爲塵事 機靜官家卽道家 目擊可能無妙處 爲令官閣種梅花 公在
興海 亦種梅于官舍

昆山一郡頗閒僻 作吏還如林下休 官閣市橋梅樹遍 使君那復憶東州
方丈仙山高壓境 中間玉室與瓊樓 不緣勾漏丹砂地 能得詩仙瘴海頭 方丈
卽頭流山

至言眞不加雕琢 大藥元非事劑丸 肯授風騷三昧法 難窺天地一壺寬
郡城西望倚山巔 屋舍熙熙官道邊 方丈羣仙知得未 此邦風采信華鮮
月影臺前螺測淺 法輪寺外官窺難 從公始識滄溟闊 作意高攀海上山 嘗於
月影 法輪等處 觀海皆并觀也 公期明日 登郡南山 望海故云

30)拙著,『退溪家年表』p.40, 參照

浣沙溪似西溪水 吟望青天坐小輿 更躡飛雲昇翠巘 天池要看北溟魚 浣沙
溪在西溪城東 在輿海

風雲不是孤明主 雨露偏承佚老臣 萬事無心南郭子 一生用力漢陰人
智異烟霞吟幾日 曲江風月夢多時 荒年撫字心應悴 莫問催科宜未宜 曲江
在輿海

里胥不到村厓靜 童子能仁野雉飛 京輦故人多少在 任地書信到來稀
雙溪形勝仙遊地 尺素招尋不我欺 還愧塵緣驅使在 能令心事有還移 去年
冬 公以書招況 勸遊雙溪寺 今來本爲是 而因事竟不果

露梁三浦賤鱸魴 北客南烹逐日嘗 太守遨牀多樂事 不知身在古蠻鄉 露梁
三浦皆郡地濱海

瘴海窮邊雖足澤 玉堂金闕要名臣 舊山猿鶴休相哂 廊廟江湖只一身 <別
集 卷一, 葉3~4>

注 ; 퇴계가 차운한 이 동주도원십육절에는 어관포가 실현한 여러 가
지 의미 있는 사실들이 들어나 있다. 不信居官能愛山 誰識昆陽吏非
吏, 機靜官家卽道家 目擊可能無妙處 爲令官閣種梅花 等句는 퇴계가
관포를 보고 입사의 뜻을 굳힌 계기가 숨어 있다. 다음에 관포의 원
운을 옮겨서 읽기로 한다.

原韻 魚灌圃 東州道院十六絕

休官久作山中相 應詔還爲道觀仙 早識此邦民事簡 懷章恨不十年前
四望渾爲老守髮 鶴峯蒼翠獨多毛 世人小識青山好 那識青山不語高
億在山陰書院閑 吟頭日日對榆山 鶴峯何事亦清瘦 到處佳山似我顏
東閣無梅動詩興 居官還不及居家 家園久別梅千樹 不分他鄉紅杏花 風土
多杏而無梅

種梅移竹乃吾癖 吏事能令昆氣休 新植數株聊寄興 可能他日憶東州
西北雲山展告畫 東南海市起新樓 主人但喜娛心目 不覺吟來白盡頭
設險古人無定制 趙侯城似一彈丸 後人不識經營意 若此對疆城已寬 麗季
知郡趙友良 勸民城志 只容倉廩

十日東風九放顛 晴雷常自殷東邊 漁人不管沒濤惡 日日來陳魚蟹鮮
 南北秩夫城主地 奈何舞袖舉猶難 我今怪拓詩疆界 割取斯羅一半山
 西溪之水水生玉 十日炎天九笥輿 恨殺曲江渾濁浪 客來時復往陳魚
 窮海之濱二千戶 吏民雖少族波臣 假令盡海爲耕地 治法征徭更累人
 擬作新軒先作圃 六期三見果公時 平生灌圃種蒔手 到處難禁結習宜
 欲識主人機事思 海鷗時見傍城飛 可嘆愚民愧微物 其知老守者應稀
 混沌溪山永玉地 林泉久被丈人欺 米監敲朴東州遠 應有英靈作檄移
 土人雋永重鯁鮐 紫蟹銀魚已厭嘗 喜淡石蠔并石首 長思二味憶吾鄉
 時復黃紬放衙去 聖恩偏厚養疴身 夢魂自識會遊慣 夜夜還爲侍從臣 <灌
 圃集, 葉 23.b>

昆陽陪魚灌圃遊鵲島是日論潮汐

鵲島平如掌 鰲山遠對尊 終朝深莫測 自古理難原 呼吸地爲口 往來山作
 門 古今多少說 破的竟誰言 <別集 卷一, 葉6>

注 ; 이 鵲島는 지금 바다가 메워져 모두 간척지로 변했으며 조석은
 구경할 수도 없고 바다는 멀다. 작도의 동구 마을에는 작도정사가 서
 있고 작도유계에서 세운 「退溪先生杖履之所」의 遺蹟碑가 서 있다.

1966년에 중건하였는데, 퇴계의 시와 李忠鎬의 後記가 새겨져 있
 다.

鵲島次安注書韻 注書以養病不赴 是會以詩來寄

海門深處趁時和 入手清詩愈舊痾 把酒臨高頻眺望 風生斜日暮生波 <遺
 集 卷二, 外篇, 葉14>

次鄭舍人遊山後贈同遊韻 是時 舍人遊智異初還

方丈山中曾有約 如今却被衆仙嗔 莫嫌洞壑笙歌聒 我未尋山已落塵 <同
 上 葉14>

浣紗溪餞渡

浣沙溪水鏡光清 落日誰家一笛聲 太守送人人亦去 滿汀芳草不勝情

<同上>

注 ; 浣沙溪가 있는 마을은 금성이다. 금성교를 건너면 姜成文氏 練江齋의 遺墟碑가 있고, 강을 따라 남쪽과 동남쪽의 산수가 수려하다. 어득강태수는 완사계에서 전별시회를 베풀고 퇴계를 전송하였다.

宿安彦驛曉起次板上韻

月落西墻空館曉 滿襟清思溢馨蘭 方知馬齷飜風雨 只怕詩成吐腎肝 驛吏
幸容單騎客 雲山猶識十年顏 當時至日孤眠處 裂指南窓半夜寒 癸未冬至
日 宿于此

一春行止任飄零 南北東西幾問程 去路渴尋冰鏡破 歸鞍吟度麥波青 風雲
嶺海詩千首 魂夢關河客一形 欲喚江南褚季野 便從半屋倒雙瓶

注 ; 安彦驛은 경국대전 경상도「察訪」조에 의하면 金泉道 20역중의 하나인데 남으로 세번째이다. 오늘날 성주군 용암면 상언동이다. (舊安偃驛 : 在 용두면 용정동)

퇴계는 회로에 김천가까이 속역 안언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 板上韻으로 이 두 詩를 읊었다. 23세 때인 1523년 동지일에도 여기서 머문 일이 있다. 창원에서 읊은 시의 부주 “癸未秋 敬仲先君 以翰林下鄉 余往訪之 至今十一年矣”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숙한 일자는 미상이다.

次吳宜寧見寄

一年三到拜簷楣 夜酌更深盡側暉 如許清詩在行橐 南來眞箇不空歸 <同上, 葉15>

寄魚灌圃

憶我去年冬 再拜得公書 開緘長跪讀公書 招我遠遊勿懷居 新春作意向南

行 千里宜春來駐驢 昆山相望不可見 幾回欲去仍躊躇 慕公日日誦公詩
孤雲西飛我不如 東風吹老芳草歇 海天萬里愁難□ 方丈山中宿願在 雙溪
寺裏仙蹤餘 公能指我作勝遊 我夢已落烟霞於 鄉書昨到毋賜環 忽然此計
墮空虛 守常區區不早往 此日不敢趨階除 鈴齋幸接揮塵尾 客舍初聽出瓊
琚 鵲島陳魚縱觀海 浣紗出餞停阜旃 丈人本自忘機事 英心豪氣尚未攄
談談未害至道餘 爵祿不入靈臺初 我行於世苦無成 詩酒平生任狂疎 但知
愚人寶燕石 不怨大匠遺櫟樗 嗟公嗜好與世殊 意我濯我出泥淤 安得從
公久不去 待公他日焚金魚 同尋青鶴置茅棟 藥圃日日躬理鋤 <遺集 卷
二, 外篇, 葉14~15>

注 ; 이 시는 퇴계가 남유를 마치고 돌아와서 여관포에게 回謝하기
위하여 읊은 시이다. 四兄溫溪가 覲親 귀향해서 서찰을 보내어 회정
을 재촉한 것 같다. 지리산, 쌍계사 賞遊를 관포가 권했음에도 취소
하고 돌아왔다. 이 남행을 마친 퇴계는 사월하순에 곧 四兄과 함께
서행을 한다. 퇴계가 성균관 유학을 권한 것 같다. 4월 23일에는 퇴
계와 함께 영주에 가 있었다. 영주에서 읊은 「四月從正言兄西行二十
三日龜城次金質夫見戲」시가 그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3. 逸詩 목록에 보이는 南行詩

1권에서 <歸自宜寧道過金烏山>, 2권에서 <渡鼎巖津>, <次吳宜寧月影
臺二首>, <次友人見寄(이 시는 ‘次友人見贈’과 重疊일듯도 하다)>, <曹敬
仲齋舍與仁遠諸人待金綏之書懷四首(一首는 유집 외편에 있고 앞에서 보
였다)>, <次仁遠>, <八莒縣> 등 10수는 제목과 목록 편집 형태로 짐작
을 할 정도이다. 퇴계시 중에서 제목은 전하나 시를 잃어버린 수는 약
1430수에 이른다. 이 중에서 <遊春詠野塘>, <詠懷>, <奠參贊權先生墓>,
<拜權奉事公墓> 같은 시는 연보 또는 다른 곳에 전하여 찾아낸 시이다.
逸詩目錄의 모든 시가 전했더라면 퇴계를 더 가까이에서 대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남행록에서 빠진 10여수를 마저 갖
추어 읽을 수만 있다면 33세의 퇴계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재편집한 남행록의 목록을 만들어 끝에 붙인다.

南行錄 再編 目錄
 二十九日(癸巳正月) 襄陽道中
 晦日登觀水樓
 登尙州觀水樓 樓在洛東江東岸 ○癸巳
 過吉先生閣 癸巳
 星州馬上偶吟
 三日(二月) 渡伽川
 望伽倻山 癸巳
 陝川南亭韻
 南亭次許公簡韻
 附·原韻「許士廉陝川南亭韻」
 梅花詩
 十一日渡丹巖津 時將訪仁遠
 茅谷吳宜寧公竹齋 宜寧命賦
 前宜寧吳公竹齋 咸安後谷
 宿仁遠書齋
 檜(會)山 曹敬仲(允慎)壽母生辰次敬仲韻
 仲春望日與吳仁遠曹敬仲陪宜寧遊月影臺
 月影臺
 日暮自臺前泛舟抵檜原
 次吳宜寧記遊韻
 十六日吳宜寧竹齋對月小酌
 白巖東軒濯纓金公韻
 吳仁遠將之安陰過宿于白巖
 仁遠還自安陰
 三月三日出遊

宜寧寓宅東軒韻

白巖新東軒臨池小酌

次韻友人見贈

樓上醉吟

東軒池上雨

贈余國珍 并序

送山人惠忠

十八日茅谷次吳宜寧韻

吳宜寧公三友臺

二十日曹敬仲齋舍與仁遠諸人待金綏之書懷

是日綏之來薺浦期明日會于此綏之竟不至

是日與仁遠敬仲誠仲散步至鼻巖

鼻巖示同遊

二十一日次仁遠

三月二十六日訪姜晦叔姜奎之(應奎)同寓法輪寺路上作

到法輪寺晦叔奎之皆不在是夜獨宿西窓雨竹蕭蕭絕有清致悵然賦此

明日晦叔奎之鄭紀南皆來會同宿又明日與晦叔偕向昆陽別奎之紀南兩同年

臺石樓

過青谷寺

昆陽次魚灌圃 得江 東州道院十六絕

附；原韻「東州道院十六絕」

昆陽陪魚灌圃遊鵲島是日論潮汐

鵲島次安注書韻 注書以養病不赴 是會以詩來寄

次鄭舍人遊山後贈同遊韻 是時 舍人遊智異初還

浣沙溪餞席

宿安彥驛曉起次板上韻

次吳宜寧見寄

寄魚灌圃

附：逸詩目錄

歸自宜寧道過金烏山

渡鼎巖津

次吳宜寧月影臺二首

次友人見寄

曹敬仲齋舍與仁遠諸人待金綏之書懷四首中三首

送山人惠忠十章中六章

次仁遠

八莒縣

V. 平生事的 의의

앞의 서언에서 연보 기사년의 행적 네 가지를 들었는데, 이것은 모두 남행후에 있었던 일이며 남행 사실이 연보에 기록되지 않았음도 이미 밝혔다. 태학에 유학하여 관생에게 敬服을 받고, 慕齋, 冲齋, 河西와 교의하고 향시에 應學하여 합격한 일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력이지만, 그 앞에 있었던 4월까지의 남도 기행은 평생사적 관점으로 볼 때 결코 경시되거나 연보에 수록 아니하고 버릴 일이 아니다.

퇴계는 장기간의 여행을 통하여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가 30세에 이르기까지 내면 세계를 이처럼 과감하게 외부에 펼쳐 보인 적이 없었으나, 선배들의 優許를 받으면서도 성찰과 절제의 한계는 벗어나지 않았다. 자기 실현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고 미래 설계도 굳혀 나갔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어관포의 초청에 응한 일이다. 騷壇 노장의 招致에는 필연적으로 시의 唱和가 있을 것임을 알고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가서 시로서 대응한 -자기실체를 보인- 것이다. 또 한 분 선배인 吳竹齋와의 記遊

唱酬에 있어서도 그는 寓目興懷와 吟諷詠賦의 시작 능력을 십분 발표하였다. 나중의 서행록 발문에 기록해 둔 바와 같이 이 남도기행은 시(以資臥遊之興)를 쓰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퇴계가 일찌기 한 기간을 두고 이렇듯 많은 시를 읊은 일은 없었다. 퇴계의 본격적인 詩作생활(문학)은 이로부터 비롯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평생 처음 읊은 <梅花詩>를 비롯하여 관포의 <東州道院次韻詩>와 <過吉先生閭>, <月影臺>, <矗石樓>, <鼻巖示同遊>, <寄魚灌圃> 등 백수십수는 그를 대시인의 자리로 올려놓게 되었고, 그 시들은 문집의 첫 장을 장식하였다.

둘째 남행은 治·教 兩全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32세 때인 임진년에 문과에 응시하고도 參榜을 보지않고 하향한 퇴계가 관포에게 동주도원의 이야기를 듣고 겸전의 가능성에 대하여 감(昆陽吏非吏, 機靜官家卽道家)을 잡은 것이다. 관포에게 홍해의 도원을 곤양에서도 이행(昆之閒僻 不減於興 則道院之稱 移之於昆) 하도록 권할 만큼 환로에서도 도의고양과 興學 교육이 가능함을 시사받았다. 여름에 서행하여 석 달 미만에 돌아왔지만 그 뒤를 科第를 거쳐 나아간 것은 이 때에 어떤 설계를 굳혔으리라고 믿는다.

셋째 養眞 結茅庵의 뜻은 이 때 벌써 다져지고 있었다. <三月三日出遊> 시에는 茅庵을 만들어 烟霞에 묻혀 사는 것을 소지라고 읊었다. 후일의 養眞庵, 寒栖庵(靜習堂), 溪上書堂(六友園), 陶山書堂(玩樂齋), 岩栖軒의 연거생활은 출사후 사회 경험을 하고난 뒤에 작정한 것이 아니라 30대초에 이미 그러한 취향을 가졌고 결모 양진의 설계를 하고 있었다.

넷째로 산인 惠忠과의 邂逅는 노불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때까지 퇴계는 많은 승려를 접했고 산사에 머물면서 독서도 했다. 찾아온 惠忠師를 대하고 난 뒤에 그에게 준 시의 서에 적은 내용은 세상 물정을 경험하고 난 뒤의 人·世觀의 재정립인 것 같이

느껴진다.

불교가 비록 살을 태우고 인륜을 끊은 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만, 속세에서 구하는 것이 없고 사리사욕이 없으며, 그 심사가 고요하고 말없이 도리를 터득하는 점 등은 장점으로 보았다.³¹⁾

아마 이러한 생각은 속된 것에 골몰하고, 명예에 급급하며, 바깥만 보고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며, 벼슬과 지위로써 귀천을 나누며, 窮·達로서 높낮음을 결정하는 세태 관조의 결론이라 보아진다. 아무튼 퇴계의 불교와 승려에 대한 태도의 한 면목이 잘 드러나 있음에 주목을 끈다.

끝으로 퇴계는 探勝을 좋아하는 여행가이며, 慕先 景賢과 謙遜 자유했는 후배이며, 풍류가 넘치는 시인이며, 雄辭閎辯으로 남을 효유할 수 있는 스승상이며, 인정이 풍부한 悅親戚의 가정인이며, 친화력 있고 온유둔후한 향당인이며, 철저한 생활(실천) 기록가란 인간상을 이 남행록은 提據해 준다.

VI. 結 論

퇴계의 생활에 대하여 평생 사업의 진행에 맞추어 연대 구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출사 이전의 장신기(준비기간), 출사후의 사환기(봉사기간), 진퇴와 吾業(사) 실천기(자기실현기간)가 바로 그것이다. 제1기가 남행록과 서행록을 쓴 33세까지이고 제2기는 풍기군수를 버리고 도산에 돌아와 한서암을 짓고 입택한 50세까지, 제3기는 51세에 계상서당을 지어 주자를 스승으로 삼고³²⁾ 교육과 저술을 시작하여 도산서당에서 인재를 양

31) 李章佐, 『退溪詩와 僧侶』, 『退溪學報』68, pp.132~133.

이 글 이하의 번역문을 참조할 것, 原文은 再編한 南行錄의 32번에 있음.

성하고 성학(실학 : 당세에 필요한 바른 학문)을 펴 인간과 사회의 개조를 위해 몸바친 말년까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제1기의 마지막 해인 계사년은 퇴계의 생애에 있어서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이며, 그 해에 있었던 행력 자체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듯 먼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많은 시를 써 남겨 놓았다.

시에 담겨 있는 퇴계의 뜻이나 언어는 그의 삼분의 일의 전반부 인생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서행록은 조금 뒤로 미루어 놓고 가능한 대로 모두 裒輯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지면 관계로 시의 해석은 손을 대지 못하고 간단한 附注로 남행 여로를 재구성해 보았다.

퇴계의 평생에 있어서 계사년의 남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하여 몇 가지로 묶어서 요약했으나, 연보에 실어놓은 이 해의 보록이 퇴계 생애의 나지막한 재(峴)로 나타내었다면 남행록은 높은 峻嶺같은 맥을 찾고 큰 강하의 줄기를 찾는 것과 같은 志行의 경계에 뜻을 붙여 명확하게 표시하는 작업이라 할 만하다.

관포의 초청을 받은 사실로서도 당시 젊은 퇴계에 대한 평가를 추측할 수 있고, 문달한 사장과 처가의 尊老들로부터 받은 중망으로 퇴계의 인물평은 더 贅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퇴계는 출사전 33세에 주위로부터 주목받았고 그를 가까이에서 겪고 아는 사람은 그 때 이미 凡俗 庸衆人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시제와 交遊한 인물로써 판단이 가능하다.

이 논문의 補助를 위해서는 그 때 만난 인사들의 저술을 찾아 더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행록의 완벽한 재구성은 아직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고 서행록과 더불어 읽으면 계사년의 퇴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拙著의 퇴계가연표에는 4월 23일 이후 芝

32) 拙著, 『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 pp.72~76.

拙著, 『退溪家年表』 p.247.

《退溪先生文集》 內集 卷二 葉5 <有嘆>.

山蝸舎에 돌아온 7월 13일 까지의 서행기록이 시로 엮어져 있다. 퇴계의 생애와 학문을 이야기할 때 이 남행록이 다소나마 참고가 되고, 퇴계를 논할 때 남행의 의의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91 辛未年 天中節 於四器軒)